

# 추수의 땅 LAOS 기도편지

202002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 싸바이디!

라오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황호선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교회의 모임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치료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라오스 소식을 전합니다.

## ● 똥강선교센터

똥강선교센터는 영어학원을 겸하여 시작되었고 각종 영어공부와 영어캠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라오스의 요람 같은 곳이며, 똥강성서침례교회로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기숙사를 운영하며, 거하는 이들의 생활비는 본인들이 감당합니다. 대부분 시골에서 온 가난한 학생들이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학교에 다닙니다. 아이들부터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까지 약 27명 정도가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은 학원으로 2층과 별관은 기숙사로 운영됩니다.

지난 1월 30일에 리, 르, 놀리, 룡 이렇게 네 명의 청년들이 '리'의 고향이면서, 피터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한 싸이썸분에서 '리' 가족의 일도 도우며,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혼방으로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똥강선교팀은 금년에 두 차례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차무아'와 '찌'가 첫 번째이고, 이번에 '리'와 '르' 그리고 '놀리' '룡'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흔들림 없이 주말이면 계속 전도하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한 결과와 전도 때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나누며 간증하는 전도훈련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설교자로 4T4의 가정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집니다. 5월경 '짠'이 필리핀에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오면 저를 도와 이곳에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 ● 똥의 가족 전도 이야기

똥의 오빠 '에'는 군인이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5세부터 마약을 해서 17년 동안이나 지속하고 있어 집안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수시로 오토바이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고, 동생 것이든 부모님의 것이든 돈을 훔쳐갑니다. 마약치료소에 보내기도 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의학공부를 하고 있는 똥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가 휴교 되어 고향에 왔습니다. 저는 똥과 함께 전도팀을 이끌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에'에게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믿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팀은 똥의 집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똥의 큰 언니 '헌'이 예수님을 믿어 딸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큰 오빠와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똥의 어머니께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의 아내도 예배에 참석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는 마약을 끊기 위해 다시 마약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똥의 엄마 소개로 똥의 이모 집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C2C 전도를 통해 온 가족이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 가족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 장례식에서 전도

필리핀에서 유학 중인 ‘마’형제의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고 조상신을 섬기던 제단을 정리하고 침례까지 순종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의 아버지께서 전도자가 되기 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그 마을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필리핀에서 유학 중인 ‘슈아’자매로부터 할아버지가 위독하니 방문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팀이 방문하니 임종의 순간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심했습니다. 옆에서 아들들과 자손들이 안타깝게 울부짖지만, 할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며 거친 숨을 내뿜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소개 하고(이미 슈아를 후원하는 외국인으로 소문나 있어 금방 인지를 함) 어르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 예수님을 소개하여 천국에 가시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가녀린 어르신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이 저의 말을 잘 듣습니다.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르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머리를 끄덕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라고 하면서 찬송도 부르면서 다시금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저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장례식에 갔는데 놀랍게도 상주가 먼저 다가와 어제는 경향이 없어서 감사의 인사를 못했다는 미안해합니다. 어르신이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믿고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은 그 마을 장례식에서 132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111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슈아의 할머니와 슈아의 어머니가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슈아’의 할머니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전도했다는 후문입니다.

라오스의 이 모든 사역들은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25일  
황호선 선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 1) 통강성서침례교회의 C2C와 T4T훈련을 통해 가정교회가 세워지도록
- 2) 싸이썬분 지역에 세 곳의 예배당 건축비용 3만 불이 채워지도록
- 3) 필리핀에 유학 중인 ‘분미, 짠, 용, 썩, 마, 메이, 슈아’의 학교생활과 필요를 위해서
- 4) 베트남에 있는 ‘똥’의 베트남어 공부와 의학 공부를 위해
- 5)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인 ‘완싸이, 데이빗, 툴리, 싸이송, 더’ 그리고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인 ‘리, 르’의 학교생활과 필요가 잘 채워지도록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될 바 아낌없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5)  
email: 2hs358@daum.net 후원계좌: 국민 778801-04-211504(황호선)